

# “마지막 순간을 조심하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 상 용

오랜만에 손톱을 깎다가 문득 2년 전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안전사고의 기억이 떠올랐다.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히고 손톱이 뭉개진 동료에게는 미안한 엄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굳은살을 별로 해보지 않고 살아온 나로서는 난생 처음 당하는 아픈 사고였다.

물론 운동선수가 국가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전장에 출정하여 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상을 당한다면 매우 영광스런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이 모두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명분도 없이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거창하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닐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심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2005년 1월 4일 오후였다.

연말연시 약 일주일 동안 문화축제 행사를 치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행사장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이제 행사가 모두 끝났다고 안심하며 긴장을 풀던 순간에 일어난 작은 안전사고였다. 그 사고 후 약 1년 동안이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귀찮게 했다.

그 행사는 연말연시에 관광객들을 초청하여 공원지역 일대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행사였다.

공원지역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나는 일용직원들과 함께 트럭에 행사용 방송장비와 탁자, 의자 등 무거운 물품들을 철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 앞에 대고 일용직원과 함께 마지막으로 장비를 하역할 때였다.

“자! 내가 받을 테니까 아저씨가 뒤에서 밀어주세요.”

차 위에 있는 아저씨에게 말했다. 일용직원은 차 위에서 장비를 밀어내리고 나는 장비를 등에 받치면서 하역을 할 심산이었다.

내가 등을 대자 차량 적재함 위에 있던 일용직원이 장비를 힘껏 밀었다. 나는 그 장비를 들쳐 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량의 적재함과 장비사이에 왼손이 끼어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몹시 당황되었다.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더니 금세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다. 작업용 코팅장갑으로 지혈을 하고는 급히 안내소로 뛰어갔다.

“구급약! 약 좀 발라주세요!”

피가 낭자한 손을 내밀며 소리치자 안내소에 있던 직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독약과 빨간약으로 응급조치를 해 주었다.

“얼지 않게 붕대로 싸매 주시오.”

나는 재차 소리를 쳤다. 옆에 있던 직원이 붕대로 손을 온통 하얗게 싸매주었다. 통증이 팔을 타고 점점 어깨로 전해져왔다.

응급조치를 하고나서 황급히 배를 타고, 선착장에서 다시 동료직원의 차를 빌려 타고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것이라며 X-ray를 찍고 응급조치를 했다. 손과 팔이 몹시 욱신거리고 저려왔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자 밤이 되었다. 회사에 전화로 통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붕대로 싸인 손을 보고 그저 안타까워하기만 했다. 밤새 끙끙 앓았다. 내가 무슨 팔자를 타고 났기에 이런 사고를 당하는가 생각하니 몹시 억울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아픈 것을 참으며 출근을 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아픈데 뭐 하러 출근을 했느냐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재보험 처리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 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



가 있겠는가 싶었다.

미팅시간에 붓대를 감은 손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팔이나 부러졌으면 모를까 그까짓 손가락 다친 것 가지고 요란하게 군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이사가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그 사람에게 핀잔을 줬다. 나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미팅이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섭섭하고 억울했다.

팔이나 부러지면 모를까 그까짓 손가락 하나 다친 것 가지고 그런다고?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회사의 큰 행사를 마무리 하다가 다친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기는 커녕 그런 심한 농담을 하다니, 참 너무나한 것 아닌가 싶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

어쨌거나 손가락 골절상태가 아무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톱이 빠진 손가락은 오랫동안 나를 귀찮게 했다. 상처가 아물고 손톱이 다시 자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한 손으로 세수를 하는 자체가 불편했다. 거의 1년이 되도록 손톱 자라는 것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했다. 현장에서는 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활동하려니깐 여간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자 새 손톱이 모두 자라고 손가락은 제 모양을 찾았다. 시시때때로 양쪽 손톱을 비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가끔 손톱을 잘라내면서 전에 느끼지 못하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 사람의 신체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손가락이든, 가슴이든, 머리가든,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남 보기에는 별 것 아닌 듯 보일지는 몰라도 당사자로서는 여간 신경 거슬리는 일이 아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아프고 신경질이 나는 데, 하물며 생으로 손가락이 다치고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성가신 일이겠는가. 게다가 어떤 명분도 없이 당하는 안전사고라면 본인 스스로도 부끄럽고 억울한 심정이 드는 법이다.

요즈음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을 감독하며 나는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 특히 포크레인에 무거운 침목이나 판석을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할 때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를 아끼지 않는다.

문득 군대생활 할 때 무심코 들고 꺾가로 흘려버렸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냥 들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값진 교훈인 것 같다.

‘마지막 순간을 조심하라!’ 